

PVC, 결국에는 700달러 선 돌파

CFR FE Asia 710-720달러로 20달러 상승 ... 완만한 상승세 지속

PVC 가격이 12월3일 CFR FE Asia 톤당 710-720달러로 20달러 상승했다.

아시아 PVC 시장은 중국의 수요강세로 생산기업들이 공급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상승세를 탔으며 타이완의 한 생산기업은 1월 Cargo를 CFR China 톤당 710-72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일본의 한 생산기업은 1월 거래물량을 CFR China/SE Asia 톤당 720-730달러 공급했으며 한국의 주요 공급기업은 중국에 CFR 톤당 740달러 이상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은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로 구매기업들은 높은 가격에도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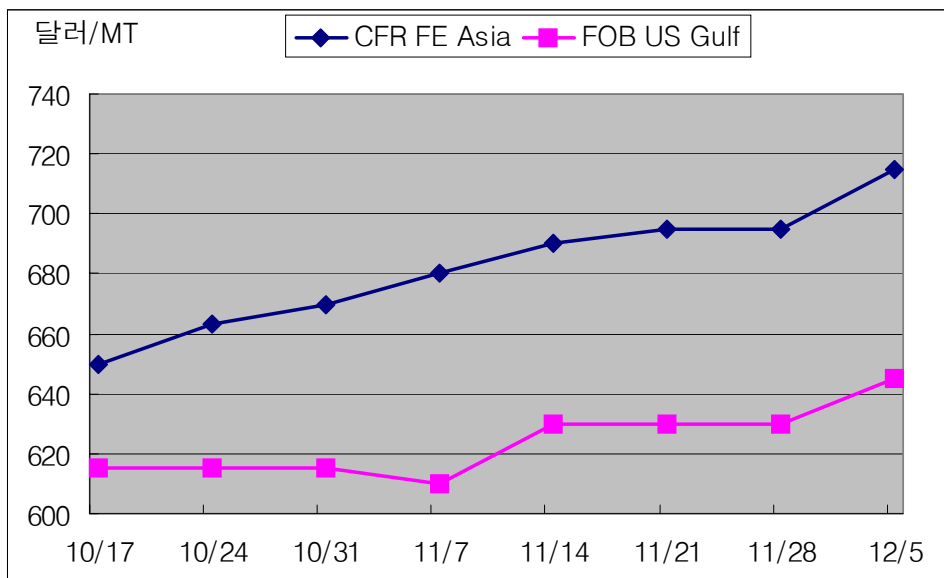
그러나 판매기업들은 중국의 1월22일 음력설로 인해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1월 물량을 제시간에 공급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.

타이의 한 생산기업은 에틸렌 코스트 압박 및 수요둔화로 인해 아직 1월 계약가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동남아 C2 가격은 CFR 톤당 555달러에 마감됐으며 인도네시아의 한 생산기업은 일본 생산기업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및 중국에 각각 CFR 톤당 720-730달러에 공급할 계획이다.

VCM 12월 공급가격은 CFR China 톤당 610달러대를 나타냈다.

PVC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PVC 가격은 12월3일 FOB NWE 톤당 660-680달러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미국가격은 FOB US Gulf 톤당 640-650달러로 15달러 상승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2/10>